

2026. 01. 08 (목)

라이나 Note - 위안화 강세 기대

중국 3개년(25-27) 경제 성장을 극대화 컨센서스 모두 상향 조정.

중국 10년물 국채금리 25년 상반기 1.5% → 25년 하반기 1.9% 반등.

내수 중심 경제 회복 도모.

경제분석 Note - 환율 반등과 낮추려는 정부

달러-원 환율이 소폭 반등해 1440원대 박스권 형성.

정부 외환수급 대책,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발표. → 달러 공급 확대 → 환율 상승 압력 완화.

코스피 강세와 정책 효과로 단기적으로 환율 낮춰갈 것 예상. 구조적 달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러 수입 촉진.

한투 - 코스피 상단 목표치 5650P

After Market - 방산 지정학적 갈등 확대 강세

미국의 러시아 유조선 나포 소식, 2027 미 국방예산 1.5조달러 언급.

트럼프 유인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트럼프 2027 국방예산 2000조 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대외와 경제적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읽어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반도체(IT)와 방산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고 환율 문제도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다.

2026. 01. 09 (금)

채권 분석 Note - 금통위와 채권 시장

작년 4분기 역성장 우려, 성장 둔화 가능성 시사, GDP 갭 마이너스 상황 시사.

올해 1분기 기준금리 동결 증립 스탠스 유지 (비둘기파적 해석 - Dovish)

국고 5~10년물 증가를 상대적 강세 요인 존재. 연도 이후 추가 강세 기대.

→ 만화가 5~10년인자가 발행 채권. 역성장 우려 감소·물가 상승 리스크 감소 → 증가물의 기대감↑.

자산배분전략 - 국면변화와 전술적 자산배분

고성장 국면과 시장 안정성 근거로 위험자산에 대해 소폭 비중 확대 의견 제시.  
(선물국 추적)

실질금리 하락, 달러 약세 기대가 신용국 투자에 우호적. 원자재 상승도 뒷받침.

AI 테마 강세에도 밸류에이션 고점 경계로 특히 모니터링을 권고.

After Market - 방산 강세 지속.

한화에너지오일리스 + 11.38%, 한화시스템 + 27.53%

이대통령 13~14일 방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11월 정상수치 증가, 반도체·승용차 호조

미국 감원 계획↓ 고용 시장 안정화 신호. 생산성 향상(with AI)

경제 회복 신호들이 존재하나 리스크도 함께 어느만큼 관건적 성향을 기대하며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외인들의 국내 투심이 긍정적인 시기라 편향은 상황이지만 환율 리스크와 기술 관련 이슈에 긴장해야 할 것 같다.

역시나 방산주 상승이 맞았고 핵심 제조업 분야가 동반 상승으로 보인다.

물가 뚜렷한 예측이 보이지는 않는데 대체로 2분기를 낙관하고 있는 증으로 보임.

단기적인 리스크에 주시하면서 투자를 강하게 나가보면 좋을 것 같음.

전반적으로 상승현상을 기점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

아직까지는 수익권역이라 예측. 한 번 큰 익절 이후 자산 형태를 안전 자산으로 변경 필요.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문화 교류와 관련된 콘텐츠 MOV는 있으나 엔터사들라는 무관.

오히려 식품 관련 국제 문화와 MOV 체결로 더 많은 기대감이 보이는 것 같음. 최근 흑백 요리사2까지 방영되고 중국에서 모방하는 컨디션도 또 방영 되는데 이런 콘텐츠 관련 교역가 식품을 시작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보임. ⇒ 삼양식품이 연관성이 높아보임.

방산주 같은 경우 상승을 예측 했으나 독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수익화 실패.

→ (희망 → 낙관 → 흥분 → 멸망 → 도주)